



아피!
어디가?

Oc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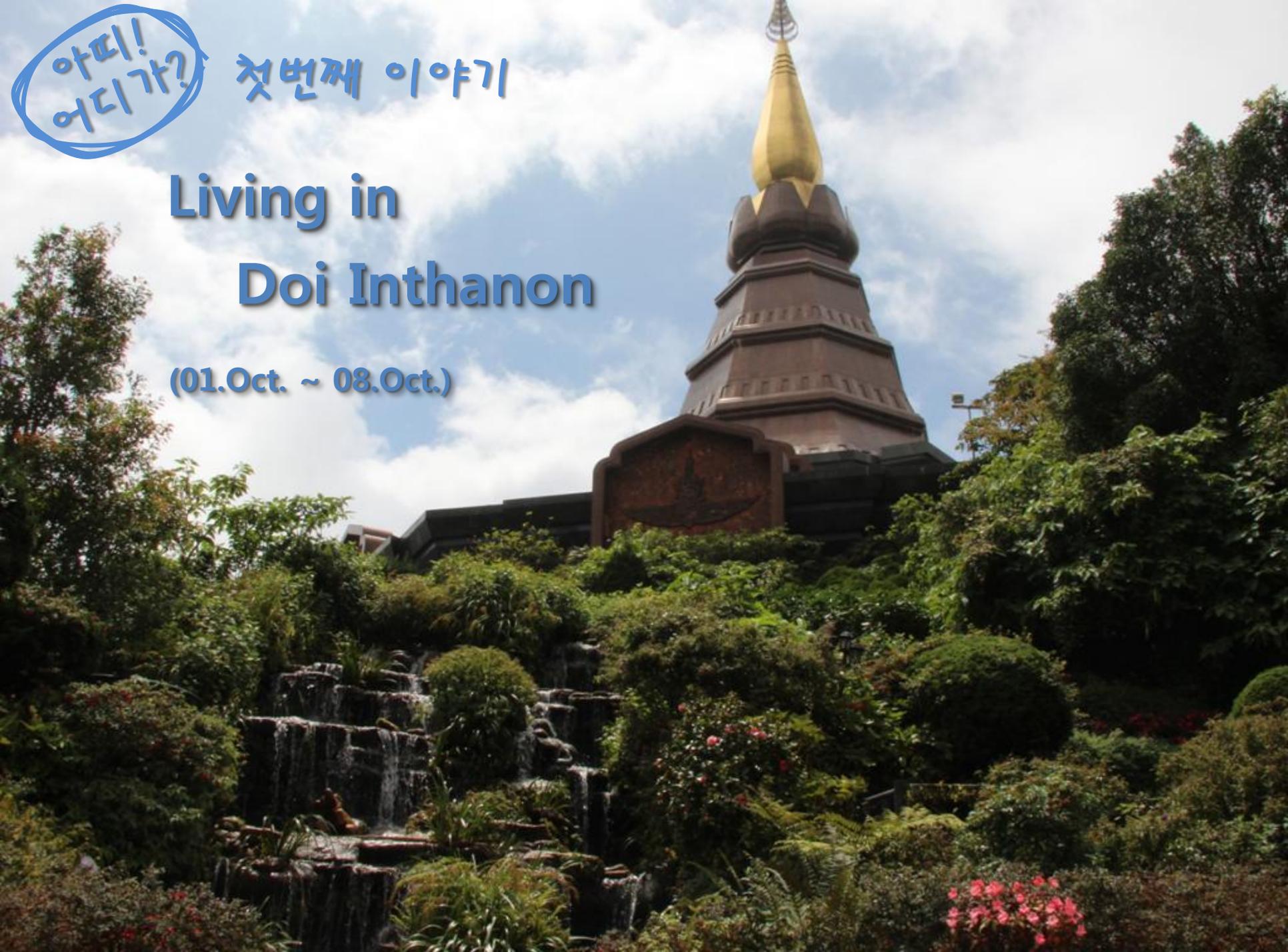


아피!
어디가?

첫번째 이야기

Living in Doi Inthanon

(01.Oct. ~ 08.Oct.)





우리는 조금 이른 저녁에 아잔(선생님) Somsit의 마을이 있는 “Doi Inthanon(인타논 산)”에 도착했다. 우리가 살던 산캠핑과 달리, 태국의 최고봉 답게 Doi Inthanon은 잦은 비와 함께 추운 날씨로 적응에 어려움이 있었다. 감기도 걸리고 안개 자욱한 그 곳에서 정말 적응 할 수 있을런지 걱정도 했었지만, 공기가 깨끗해서인지 금세 모든 것을 떨쳐내고 재미있게 지낼 수 있었던 것 같다.



태국 최고봉,
Doi Inthanon에
도착하다





양 목장에서 일 . 하 . 기 .



아침마다 우리는 양 목장에 가서, 어떻게 양들을 키우는지부터 얼마나 양들을 사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우리의 정신적인 태도까지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양 우리를 치우고, 먹이를 먹이고, 부상을 치료하는 등 많은 일들을 하며, 우리는 유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요즘은 동네 친구 만들기가 쉽지만은 않다. 하지만 우리는 마을의 주민들로부터 그 것이 '내가 하기에 달렸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었다. 우리가 웃음을 지으면 그들 또한 웃음으로 대답해주었고, 특히 'Nung. Thu'는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었다. 우리는 함께 상황버섯과 같은 큰 버섯을 찾아 다니며, 목장을 돌보고, 태국 노래를 부르며 태국어를 배울 수 있었다. 정말, 그들이 그립다~



동네 친구 만들기





우리는 Doi Intanon의 유명한 장소들을 돌아 봤다.
그 곳들은 인타논 산의 최고봉에 위치해 있었다.
최고봉 근처에 있는 유명한 절, 물고기 양식장, 게스트
하우스 마을과 다른 유명한 장소들을 다녀왔다.
친구에게 보여주고 싶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다.



DoiIntanon 배우기





카렌족은 우리가 알던 것과 조금 다른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들은 목에 링을 층층히 두르지도 않았고, 단지 깊은 산 속에서 일층이 없는 이층집에 살고 있었고, 그들 토속의 언어를 사용했다. “오므쉐프”라 하며 악수를 하는 것이 그들의 인사 방법이었고, 감사합니다를 “땀브르”, 맛있다를 “람떼떼”라 하였다. 그리고 음식을 함께 모여 같이 먹었고, 술 한 잔도 함께 조금씩 나눠 먹는 풍습을 갖고 있었다. 하루 밤이라는 시간 밖에 없었지만 그들과 함께 어울릴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K A R E N

과 함께
살아 보기



두번째 이야기

아피!
어디가?

End Poverty Campaign
(12.Oct.)





첫번째로 우리는 End Poverty에 대해 Walking street의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 보았다. 우리나라 산캠핑 사람들 모두 일반적인 방법으론 지루 할 것이란 생각이 들을 것이라 생각했다. 좀 더 신선하고 일반적이지 않고 재미있을 것들을 생각하게 되었다. 결국, 우리는 우리만의 방식으로 Talk concert를 계획하게 되었다.

우리가 생각한 Talk concert의 장점은 첫째로 우리의

Talk concert를 계획하게 된 계기는?

의견을 공유할 수 있고 다른 의견들 또한 배울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는 모든 사람이 듣고 보며 즐길 수 있기 때문이고, 셋째는 이 캠페인 활동을 통해 많은 친구들을 만들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마지막으로 "LOVE COFFEE" 카페



<Time Table>

- 18:00 - 18:30 .
 - Welcoming & Greeting .
 - Writing the Idea of End Poverty and looking exhibition with musics(Just playing records)*.
- 18:30 - 19:00 .
 - Gathering participants in front of Love coffee(where is installed the stage)*.
 - Welcoming performance : RaonAtt playing Jang-gu .
 - Welcoming by MC* .
 - Dinner .
 - Break time : Songs(2) - P*tem *
- 19:00 - 19:15 .
 - The Organic Agriculture with End Poverty (by Jeerawan Sodawad) .
 - Q&A .
- 19:15-19:25 .
 - Break time : video*
- 19:25-19:45 .
 - Living with the nature to end poverty (by Ms. Patcharin Aviphan) .
 - Q&A .
- 19:45-19:55 .
 - Break time : video(2)* .
- 19:55-20:00 .
 - Explaining about exhibition & Deviding sheets to audience (for promising tree)..

를 통해 우리가 무엇을 위해 이 일을 시작하게 되었고, 공정무역 커피를 사용하는 이유까지 알려주기에 수월할 것이라 생각했기 때문이다.



먼저, 홍보에 대해 걱정을 하게 되었다. 어떻게하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P Yo와 P Prae의 도움을 받아 캠페인은 준비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래서 첫번째 홍보로 MAJO Univ.에 가게 되어 교수님께 요청을 하게 되었고, P Oat 교수님께서 참여할 수 있게 되었다. 두번째 우리는 포스터를 제작하게 되었고 많은 사람들에게 보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는 동네 지인들의 가게(커피숍)에 찾아가 실내에 포스터 부착을 부탁하며 홍보를 하게 되었다.

RoomAtti YMCA KB국민은행

Love Coffee Talk Concert

End Poverty

When : 12 . 10 . 2013 (Sat) 6:00pm
 Where : Love Coffee
 Topic : End Poverty
 Main Contents
 Lecture : relation among Eco tourism, Love coffee and Poverty
 Dinner Time
 Talking to share experiences
 Promise to act
 *Performance of RaonAtti from Korea

캠페인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우리는 End Poverty를 보여주고 알려주길 위해 어떤 방법이 효과적일지 생각해보았다. 그 첫번째 방법으로 Poverty를 주제로 한 사진전을 열게 되었다. "Love Coffee" 커피숍에 사진들을 걸어놓아 무엇이 우리가 이야기하고 싶은 Poverty인지 보여줄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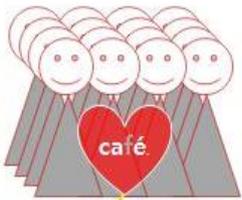


Enjoy this moment
Keep smiling



What?
อะไรอะ?

RoomAtt:



go there very oft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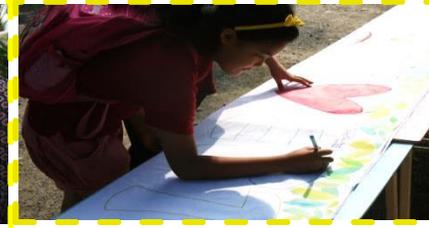
Thon Phai



두번째로 캠페인 참가자들에게 약속의 의미로 자신이 작성한 포스트 잇을 붙일 수 있는 "Promising tree"를 만들게 되었다. 세번째로 카페 앞을 많은 볼거리로 장식하였다. 예를 들어, 기관에 남아 있던 부채들을 재활용하여 참여자들의 국기들 색칠해 장식해 놓거나, 이전 라온아띠 멤버들의 헌옷을 이용해 꾸며 보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Poverty가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미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PPT와 영상을 만들었다. Ton yong의 주제인 "Do you know Wonderland?"를 이후로, Ton Phai는 "In my Poverty"를, Doc Khem은 "Doing in reality is not difficult and special" 등 세 명은 자신의 Poverty 이야기를 준비하였고, Ton khun은 "What is the MDGs?"를 통해 MDGs를 통해 일상에서의 실천 가능한 방안을 이야기 하였다.





1. Welcoming & Greeting

- 캠페인을 시작하기 전에 방명록을 작성할 수 있는 현수막을 만들어, 참가자들이 "END POVERTY"에 직접 다양한 색, 다양한 언어, 다양한 이야기들로 채워놓았다.

Talk Concert 프로그램 구성은



2. Welcoming performance

- RaonAtti 태국팀의 장구 공연 - P Yem의 기타연주



3. 저녁 시간

4. 사진전에 관한 설명 & End Poverty 영상 보기



5. End Poverty 강연

- "The organic Agriculture with End Poverty" (by Jeerawan Sodawad)
- "Living with the nature to End poverty" (by Ms. Patcharin Aviphan)



6. 함께 공유하는 시간

- "Why I started to Organic farm" (by Carrina)
- Meio Univ. 학생들 자신의 나라(필리핀, 라오스, 중국)에 대한 Poverty 나눔
- 참여자들이 직접하고 함께하는 노래 시간





7. RaonAtti와 생각을 공유하는 시간

- "Do you know Wonderland?" (by Ton Yong; 조수진)
- "In my Poverty" (by Ton Phai; 최재준)
- "Doing in reality is not difficult and special" (by Dok Khem; 선별기)
- "What is the MDGs?" (by Ton Khun; 김준범)



8. Ending time

- 캠페인에 지속적인 참여 방법 설명
(Facebook 활용한 일상 속 실천 올리기)
- 'Promising Tree'에 자신만의 실천 방안을 적어 붙여보기



세번째 이야기

아피!
어디가?



*Phrao, Organic Farm
in Baan THAM
(14.Oct. ~ 19.Oct.)*



- Mae Dau (다우 엄마) ; 주위 이웃들이 음식을 사러 올 정도로 음식을 매번 맛있게 만들어 주신다. 또한 정말 친절하고 따뜻한 어머니 모습이 느껴진다.
- Puu Kae wu (깨우 아저씨) ; 자신의 아들과 한국 아들, 딸(라온아띠 2기)을 무척 자랑스러워 하시는, 그리고 커피를 좋아하는 아버지.
- Meo Pui (푸이 고양이) ; 사람을 좋아하고 애교 많은 부드러운 고양이

Host 가족들

- Mea Kham (캠 엄마) ; 만능재주꾼, 친절하시고 우리들을 지켜주는 슈퍼맨 같은 존재
- Nung Boss (보스 동생) ; 잘생기고 귀여운 우리의 친구이자 태국어 선생님
- Botte (뽀뽀 강아지) ; 애교 덩어리 & 너무 더러움.





-Mea Khaw (캐우 엄마) ; 친절하고 큰 웃음이 매력적임. 우리를 항상 걱정하시고 돌보시지만, 가끔 무슨 말인지 모를 때가 있음.

-P' Chai (차이 아저씨) ; 이 동네의 Coordinator이지만 우리가 밤에 만 만날 수 있는 바쁜 아저씨.



-Rung Bum (룽범 아저씨) ; P' Cha'의 동생, 만능 재주꾼으로 마을의 여러가지 일을 하는 친절함 삼촌. Organic farm 업무를 주로 하심.

-Maeo Dam (담 고양이) ; 우리집 검은 고양이 (태국어로 검정색이 '씨 담'이기 때문), 잠이 들 때 다가와 함께 자는 마초같은 녀석.



Organic farm 일 배우기



우리가 "LOVE COFFEE" 카페에서 판매하고 있는 유기농 쌀을 이 곳에서 어떻게 제배하고 가공해서 우리가 판매하게 되는지 직접 보고 함께 땀 흘리며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우리가 함께한 과정은 수확한 쌀들을 햇볕에 말린 뒤 마대에 포장하는 작업이었다. 특히, 아직 서툰 태국어 실력이라 못 알아 듣지만, 똘똘 별에서도 시종일관 웃음을 보이며 말을 건내던 마을분들 덕분에 힘든 줄도 모르고 재미 있게 일할 수 있었다.

Chiangmai 새벽 장터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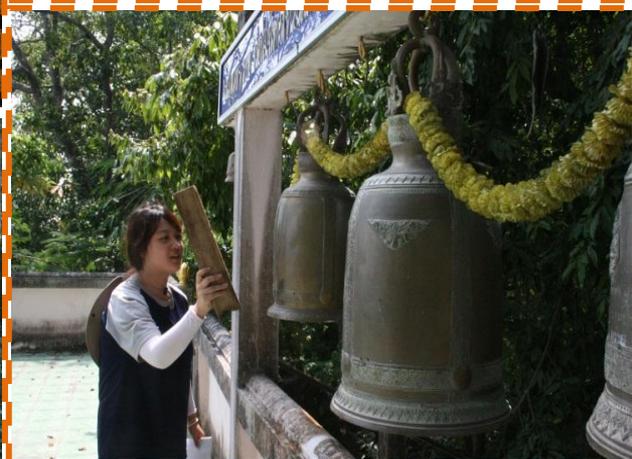


매주 토요일 새벽이면, 마을사람들은 한 주간 준비한 유기농 채소와 간식을 차에 한가득 싣고 ChiangMai에 있는 새벽장터로 떠난다.

우리는 새벽 2시에 일어나 마을을 떠나게 되었다. 도착하자마자 물품을 나르고 정돈하며 판매도 하느라 정신이 없었다. 4시부터 8시까지, 사는 사람은 유기농 채소로 건강을 챙기고, 마을 사람들은 좀 더 나은 가격으로 이득이 되는 우리 시장의 참 모습을 배웠던 시간이 아니었나 싶다. 고되기도 했지만 마을 사람들과의 아쉬움이 더 했던 하루 아침이었다.



Baan Tham Dok Kham 둘러보기



우리는 Baan Tham Dok Kham 마을을 둘러 보았다. 그 중 높은 사찰에서 바라본 마을의 풍경은 아름다웠다. 그리고 특히 매일 아침 열리는 장터에 Mae Dao를 비롯한 각 집 엄마들과 함께 새벽장을 다녀 온 것은 좋은 경험이었다.

아피!
어디가?

네번째 이야기



Nursery
Center

(21.Oct. – 22.Oct)



첫째날 아침, 비가 억수로 쏟아져 우리는 기관 안에 있을 수 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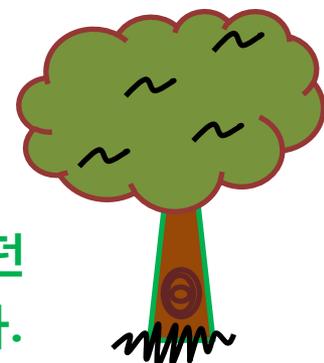
어린 나무 센터인 이곳에 대한 설명과 좋은 나무 모종과 꽃씨를 찾는 방법을 들을 수 있었다.

오후에는 비가 그쳐 센터 주위를 돌며, 태국의 나무에 대해 설명 해주었다.



둘째날도 산캠핑 YMCA의 만
능 재주꾼 P Mom, P Pia과 우
리들의 친구인 Phai, Fern, Fue
와 그리고 우리의 장난꾸러기
Cam과 Mot 함께, 다시
Nursery Center program에 참
여하게 되었다.

우리는 그들과 함께 어린 묘목
의 잡초를 제거
하는 일을 했다.
일하는 즐거움
을 느낄 수 있었던
짧은 시간 이었다.



아피!
어디가?

다섯번째 이야기

(23.Oct. ~ 25.Oct.)

Coffee
Organic Farm in Suan Lahu





어떻게 커피를 만들까?



1. 커피 열매 모으기
(오직 빨강거나 노란색 열매만 채취)



2. 첫번째 껍질 벗기기
(커피 열매는 두 겹의 껍질로 덮여있음)



3. 물에 불리기
(하루 밤 동안)



4. 불린 커피열매 말리기
(3개월 동안 야외에서)



5. 두번째 껍질 벗기기
(마른 커피열매의 두번째
껍질을 치앙마이에서 제거)



6. 못 생긴 커피 선별
(두번째 껍질을 벗길 때, 모양
이 온전치 못한 커피가 생김)



7. 로스팅 준비하기
(200°C가 될 때까지 예열)





8. 커피 씨앗 로스팅하기

(한 번에 5kg씩, 6번만 가능,
로스팅 시간에 따라 다른
향의 커피를 얻을 수 있음.

- > 40 min ; 강한 향
- > 20 min ; 보통 향
- > 10 min ; 약한 향)



9. 봉투 색깔에 따라 알맞은 커피 담기

(커피 종류와 양이 봉투의
색에 따라 모두 다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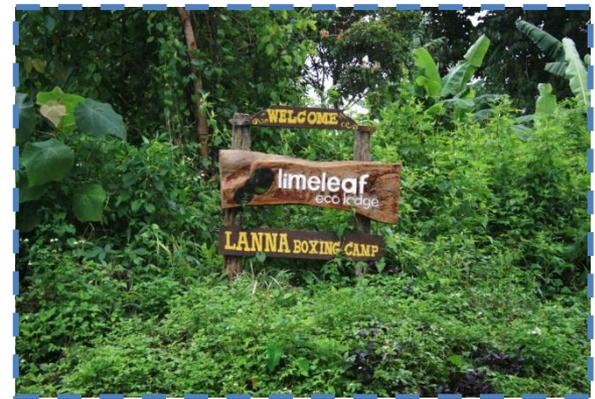


10. 밀봉 / 스티커 부착

LAHU 동네 둘러보기



Doi Mot (개미산)의 LAHU 마을 입구



커피 농장 안내도

LAHU의 인사말 "따블 유~"



카렌족 주택과 비슷한 모형의 주택들

방문객의 축복을 기원하는 전통 악기 연주



한국과 동일한 호칭 "엄마" / "아빠"



Lahu 삶의 나머지 이야기



아띠!
어디가?

여섯번째 이야기

1st Presentation to S.K.P. YMCA



1st presentation for SKP YMCA



10월 31일 오후, 2달 간의 태국 생활을 정리하고 서로의 느낌을 SKP 식구들과 Mr. Nomen, Phai와 공유하며 좋은 조연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 기간에 김준범 단원이 많이 아파서 같이 참여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쉬웠다. (그래도 지금은 싸바이 막!)

우린 그때 그때 활동을 할 때 마다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 서로의 느낌도 공유도한 상태여서 보고서를 만드는 과정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다만 각자가 만든 PPT가 팀원들에게 공유가 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우리 또한 그 점을 인정했다. 서로 어디 지역은 누가 만들고 어느 활동은 누가 만들자라고 했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이 시간은 솔직한 감정들을 YMCA 스태프들과 공유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자 남은 기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었다.



일곱번째 이야기

아띠!
어디가?

나머지

아띠의

이야기들



울산 Y M C A Mom&Kid Camp (29 ~ 31. Oct)



송진호 사무총장님과 울산YMCA 아기사포츠단 어머니와 아이들이 착한 여행이라는 테마를 가지고 태국으로 캠프를 왔다. 비록 우리는 바로 곧 마을로 가야 해서 4일 내내 함께 하진 못했지만 2일 동안 캠프를 서포트 해주고 "LOVE COFFEE" 도 알리고 장구 공연도 할 수 있었던 알차고 즐거운 시간이었다.



태국은 대학을 졸업하면 마을 사람들과 지인들을 초대해 성대하게 파티를 여는 문화가 있다. 운이 좋게도 우리 가족인 P Nang의 아들 P Nui의 졸업 축하 파티 겸, 군대 송별회를 함께 할 수 있었다. 게다가, 미리 러이크라통(; 태국 등불축제)를 체험하며 함께 축복을 비는 새로운 경험도 할 수 있던 좋은 기회였다.



P. Nui의 졸업 파티 (29. Oct)



아띠!
어디가?

여덟번째 이야기

Our

Feelings

Ton Khun의 느낌

<우선 살고 보자!>

나는 토종 한국인이라는 것을 매일매일 느끼고 있는 것 같다. 기후에 적응하기 힘들다가도 김치가 보이면, 짜파게티가 보이면 아무 생각 없이 먹기만 한다. 난 그런 시간에 행복을 느끼고 스트레스를 푸는 하나의 방법이 된 만큼, 이 곳에서의 시간도 많이 지났다는 생각을 할 때면 아직 전진 하지 못하는 내 자신이 속상할 때도 많다. 매번 일정을 떠나기 전부터 감기에 걸리거나 건강이 좋지 않아 그 곳에서도 처음부터 며칠간 고생하고 얼마 남지 않는 시간을 동동거리며 적응하려는, 그리고 적응하려 했던 내 모습을 돌아해보면 무언가 족쇄에 잡힌 듯 답답하다. 그래서 이번 달의 나의 주제는 “우선 살고 보자!”라 생각한다. 38.4도까지 열이나 침대도 적셔봤고, 마사지도 받아보다 더 아파 울며 자본 적도 있어서 인지, 우선 어떻게든 끈질기게 버티며 쓰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오뎅이처럼 내 자리는 지켜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한, 어느 순간 전진할 준비가 아니라 전진하고 있는 내 모습을 돌아켜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우리 팀원들에게 늪은 팽권을 데리고 사느라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을 항상 갖고 있다. 세세히 고백하긴 그렇지만 지금 우리들처럼 서로서로 잘 지낸다면 더 없이 좋은 친구이자 동반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 항상 고맙고 힘내자!

Dok khem의 느낌

한국에 살 때는 특별한 날에나 느낄 수 있었던 보통의 인간 관계의 따스함을 이곳에서는 하루가 멀다 하고 느끼고 있다. 쏟아지는 새로운 관계들을 받아 들이는 것이 처음에는 약간 부담스럽기도 했다. 무언가를 바라는 것이 있는 걸까? 라온아띠라는 자원활동가이기 때문에 어떤 활동의 결과를 바라는 건 아닐까? 하는 등의 생각들 말이다.

하지만 그런 것은 결국 기우에 불과하다는 것을 매년 느꼈다. 이런 정이 넘치는 관계가 때론 외국인이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관심에 불과한 것은 아닌지 하는 의심을 하기도 했다. 중간평가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현지 스텝들과 더 이야기를 해보면서 결국 어쩌면 이게 바로 내가 잘 모르고 있었거나 혹은 잊고 있었던 감성이 아닐까 싶다. 낯설지만 따뜻해지는 것. 11월은 또 더욱 새로운 관계를 만들게 될 것이다.

또 다시 느낄 수도 있는 낯선 감정에 의심보다는 관심을, 많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좋은 느낌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Ton Phai의 느낌

<10월, 나의 어렵고도 풀리지 않는 고민>

10월 달이다. 10월 달에 우리는 태국의 이곳 저곳을 많이 다녔다. 많은 곳을 다닐 때는 가는 목적과 가서 무엇을 느끼고 와야 된다는 것이 분명했다. 그렇기 때문에 organic farm, royal project를 느끼고 본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을 봐야 된다는 생각으로 오히려 그곳에서 사는데 많은 방해가 됐던 것 같다. 사람들은 늘 과거를 후회하기 마련이지만 그 후회를 최소화해야 된다는데 벌써 후회를 하고 있는 것 같다. 나는 그곳에 살면서 얼마나 그들과 소통 했을까? 일하는 시간 이외 쉬는 시간이 주어지면 사람들과 이야기 하는 것 또한 일로 느껴졌다. 머리가 너무 아팠다. 말도 잘 통하지 않아 그냥 웃고 있는 것 또한 불편하고 그 사람들도 억지로 웃는 것 같아 불편했다.

9월 달을 마무리 하면서 다음부터는 솔직한 내 모습을 보이면서 살자라고 말했지만 솔직해지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람들의 관계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그냥 말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고 한다. 나는 그들에게 얼마큼 노력을 했을까? 아니 노력을 했을까? 아니면 노력하는 것이 힘들고 지친 것일까? 어디를 가도 이런 생각이 앞에 가려 멎지고 처음 봤던 광경도 그냥 아무런 감정이입이 안되고 일을 할 때 마다 왜 이 일을 하고 있을까? 라는 질문만 가득했다.

10월은 나에게 있어서 고민의 달이 있다. 그 고민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답답함은 더욱 풀리지 않고 있다. 다만 시간이 지나면 풀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작은 희망만 생겼을 뿐이다.

Anyway Ton Phai 파이팅!!! 태국팀 파이팅!!! 라온아띠 파이팅!!!

Ton Yong의 느낌

◇ **딤용**. 두 달 전, 내 이름을 받았을 때는 이름을 소개할 때마다 수많은 별명이 생겼다. 똥용, 똥용, 다른 의미의 딤용 등. 이유는 내 발음 때문이었다. 그래도 이제는 제법 익숙해 졌는지 이번 달은 무사히 pass. 내 이름이 입이 익숙해진만큼 이번 달은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다. End Poverty 캠페인부터 11월에 시작한 홈스테이까지 “싸와디카. 찬 츠 딤용 카. 인디티다이루짜카”를 열심히 외쳤다. 아무것도 아닌 이 이름 소개는 참 신기한 힘을 갖고 있는 듯하다. 먼저 다가가서 저 말 한마디를 했을 뿐인데 그냥 스칠 수 있는 인연이 친구라는 테두리로 묶여졌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딤용이에요. 만나서 반가워요. 이 한마디가 이렇게 설렘 수 있는지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다. 두근두근. ‘딤용’은 이제 걱정거리가 아닌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는 설렘의 신호가 됐다.

◇ **딤용**. 내 한국이름 조수진보다 두달 동안 훨씬 더 많이 불린 이름. 이 이름이 처음보다 더 좋아지는 이유는 이 이름을 가장 많이 불러준 사람들 덕분이다. “딤용용용”이 들릴 때마다 그 뒤에 붙는 건 YMCA 가족들의 미소다. 의사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서로 마음이 상할 때도 있었고 아니 어쩌면 지금도 나는 그들에게 어리광을 피우고 있는 애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한다. 하지만 피프레가 말했다. “싸워도 울어도 괜찮아. 싸워도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며, 하하 웃으며 풀 수 있는 가족이니까.” 그렇다. 우리는 이제 가족이 됐다. 이들이 불러주는 딤용. 내 이름은 부르면 부를수록 참 정감있는 이름인 듯하다.

◇ **딤용**. 아직은 수진이보다 덜 익숙한 이름. 두달이 지난 지금 우리 팀원들은 조금씩 나를 수진이 가 아닌 딤용으로 부르기 시작했다. 두달 동안 가장 밉고 미안하고 고마운 사람들. 다시는 안 볼 원수처럼 싸울 때도 있다. 하지만 이렇게 아직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는 이유는 가랑비에 옷이 젖듯 조금씩 서로를 받아들인 게 아닐까. 친구, 원수, 가족. 이 모든 말의 교집합이 닿아있는 사람들. 딤용, 독캠, 똥쿤, 똥파이가 서로의 입에서 더 자연스러워질 때쯤 우리의 관계는 하나의 집합을 이룰 수 있지 않을까.

◇ 2개월이란 시간이 흘렀다. 폭우가 쏟아지던 우기가 끝나가 듯, 팀에 몰아쳤던, 내게 몰아쳤던 폭풍우도 가신 듯 하다. 2개월 동안 내게 어떤 걸 배웠느냐, 어떤 변화가 있었는냐고 묻는다면 아마 사람과의 ‘관계’라고 답할 수 있겠다. 처음, 가족, 친구... 참 많은 인연이 생겼다. 이 인연들의 시작과 끝에는 ‘딤용’ 이 두 글자가 있다. 딤용. 참 고마운 이름,